ectives

01

Ⅲ. 경제부문별 거시지표

생산

02 경남 업종별 현황

-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27.1%), ·증기업(1.1%), 기타제품(16.6%)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27.1%), ·증기업(1.1%), 기타제품(16

03 경남 제조업 재고율 및 재고순환지표

- 9월 제조업 재고율은 126.6%로 전월대비 0.3%p 하락, 전년동월대비 5.2%p 상승

지역내총생산

01

04 부록
4차 산업혁명의 추세와 동향

! 구글, 뉴욕에 10억 달러(1조1200억원) 새로운 캠퍼스 조성 발표

구글이 뉴욕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허드슨 스퀘어(Google Hudson Square)'로 불리는 이 캠퍼스는 맨해튼과 허드슨가 315~345번지 사이에 170만 평방피트(15만㎡, 5만평 규모) 규모로 건설된다. 구글은 2022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향후 10년 내에 1만 4000명까지 고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구글은 약 20년 전 뉴욕에 첫 오피스를 설립하고 2010년 17억 달러(1조8600억원)의 빌딩을 매입한 바 있고, 올해 초에는 맨해튼 첼시마켓 빌딩을 24억 달러(2조7천억원)에 추가 매입했다. 현재 구글 뉴욕오피스에는 7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 중이다. 구글 CFO 루스 포랫은 "뉴욕 투자는 미국 내 시설과 사무실, 고용투자를 증대하려는 노력이며, 본사가 위치한 실리콘밸리 외 타 지역에서 더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미국의 IT 공룡들이 동부로 거점을 옮겨 시장의 균형을 맞추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시장우위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노력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마존도 최근 뉴욕 인근 롱아일랜드에 제2본사 건립을 발표하여, 이후 일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 포브스, 2019년 기업과 소비자들을 위한 주요 트렌드3 : 회의론, 외로움과 직원0명 도전

포브스가 2019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렌드를 소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론의 시대: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이 진실이었다가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실제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회의론이 새로운 신뢰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둘째, 외로움이 유행: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가족을 떠나고 있고, 좋은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는 10대들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집에 머물며 인터넷 쇼핑을 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과 소셜미디어로 대인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강화하면서 매력적인 오프라인 경험도 함께 제공하여 수익을 높이고 있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고(Amazon Go)의 오픈을 확장하고 있고, 영국 유통회사 세인스버리(Sainsbury's)는 고객의 대화를 장려하는 'Talking Tables' 코너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직원 0명에 도전: AI가 많은 사람의 일을 대신 처리하고 있다. 이미 많은 비즈니스에서 직원이 필요 없는 솔루션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마존고가 2년 전 시애틀에 무인 결제시스템을 선보였고, 샌프란시스코에는 계산원이 없는 '스탠다드 마켓(Standard Market)'과 같은 곳이 등장했다.

(자료 : 코트라 실리콘밸리 사무소)